

[종합·해설]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오늘 개원

정치 공방 '민생 뒷전' 우려

이명박 검증·남북정상회담·기자실 통폐합 등 쟁점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 정에 돌입한다. 각 정당은 하나같이 민생법안 통과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10월 초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FTA(자유무역협정), 기자실 통폐합 등 굵직굵직한 협안이 산적해 있어 날선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올 정기국회는 연말 대선을 목전에 두고 열려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간 대선 주도권 잡기 경쟁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간 힘겨루기로 정기국회의 하이레이트인 국감 일정자 확정하지 못하는 등 출발부터 과행 조짐이나타나는 가운데 정작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린 채 대선의 해마다 반복됐던 '부실 국회' 고질병이 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검증=민주신당은 이 후보에 대한 전방위적 검증에서 총력전을 펼칠 테세다. '이명박 국회', '이명박 국감'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여서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민주신당은 이 후보의 주요 정책분야별 TF(태스크포스)를 구성, 경부대운하 공약과 '747 공약'(7% 경제성장,

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시기가 당초 8월 말에 대선을 2개월여 앞둔 10월초로 연기한 배경도 짐증 추궁하기로 했다.

◇최재선 진진화 방안=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차례는 5당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당별로 운도차가 확연히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를 '언론자유 수호' 국회로 명명하고 홍보처 폐지 법안 통과와 함께 취재선진화 방안을 주도한 국정홍보처장의 해임건의안을 관철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정치관계법·예산=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정기국회니만족 무엇보다 정치관계법 통과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흑색선전·허위폭로 제재, 대선 관련 특별수사부 설치를 비롯,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대선 후보 유고 시 선거 연기 등에 대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예산심의와 관련, 정부와 범여권을 겨냥한 대선용 '선심성 예산' 논란이 한나라당 등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호석기자 who@kwangju.co.kr

北-美 '관계정상화' 조율

실무그룹 2차회의 마쳐...北 2단계 비핵화도 논의

제1회 회의에서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의 제2차 회의가 이를간의 일정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의 초점은 이를 그대로 반세기 넘도록 적대적인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맞춰졌다.

이틀간 열리던 이번 회의에서 북핵 시설 불능화와 농축우라늄(UEP) 의혹을 포함한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 등 북한의 2단계 비핵화 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됐지만 어디까지나 우선점은 관계정상화 부분이었다.

회담장 주변에서는 이번 실무그룹 회의 분위기가 전례없이 좋았던 점으로 미루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경관 북한 외무성 부상도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다.

◇ 적성국 교역법의 대북 적용 배제 = 이 문제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삭제와 더불어 북한이 미국의 관계 개선 및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적성국 교역법(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은 미국에 적대적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자는 취지에서 제1차 세계대전 와중인 1917년에 제정됐다.

교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과 정상적인 교역을 할 수 없고 미국내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물론, 교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와 거래를 하는 국가도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다.

일단 박 전 대표측은 이날 언급에 대해 정권교체 협력이라는 협의를 통해 승복 연설의

제1회 회의에서 거론된 주요사항을 점검한다.

◇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삭제 =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명시했다. 1987년 KAL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그 명단에 올릴 뒤 20년이 됐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북한과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5개국 뿐이다. 그동안 북한은 북핵 6

자회담 석상이나 북미 양자회담 자리에서

명단 삭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힐 차관보는 "우리는 그것(테러지원국

삭제)이 어떤 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협의해 볼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언

李 정책비전기구 곧 발족

대운하 등 '공약 가다듬기' 본격화... "신 빙곤층 해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금주중 대규모 정책비전기구를 출범시키고, 정책공약과 국가비전 가다듬기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 후보는 주말인 1, 2일 이구구 당 정책 위원회와 '한반도 대운하' 공약수립에 관한 회의를 개최해 교수, 강민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 등 당 안팎 인사들과 정책 회의를 잇따라 열고 향후 구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입선후보 비서실장이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이 후보는 회의에서 "한나라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지만 (공약수립 과정 등에) 큰 국가비전을 만드는 조직으로, 당내에 선 정책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주축이 되고, 당 밖에선 한반도선진화재단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뉴라이트(신보수) 계열을 포함한 각계 각종 실무형 인사들이 대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일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박 전 대표 지역구인 달성지역구 '감사모임'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당직 인선 갈등 '李 향한 간접 경고'

朴 "할일 하겠다" 의미 뭘까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날 발언이 최근 박 전 대표측을 겨냥한 이 후보측의 '반성' 발언과 친이(親李) 인사 중심의 당직 인선 과정에서 갈등 기류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 대선후보측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가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한 측근 의원은 "오해받을 행보는 하지 말자는 주장과 경선 과정에서 도와준 의원들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불만 사이에서 박 전 대표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반영된 언급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표가 대구에서 이런 모임을 한 것 자체도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마카오는 달려가는데...



마카오가 탈바꿈하고 있다. 마카오하면 가장 먼저 카지노가 떠오른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마카오를 도박의 도시로만 여겨서는 곤란하다.

지난달 말 개장한 마카오 베네치안 호텔에 들른 관광객들은 이구동성으로 마카오의 변신에 놀라워했다. 호텔에는 축구장 세 개 넓이의 세계 최대 카지노 들어섰지만 3천 개의 호화 객실, 일산 킨텍스의 두 배 크기인 컨벤션센터, 6개의 박람회장과 108개의 회의장도 갖춰졌다.

여기에는 곤돌라가 유유히 오가는 운하 주변을 흐르고 세계의 명품이 가득한 쇼핑몰이 손짓하고 있다. 베네치안 호텔은 도박에 치중했던 마카오가 컨벤션과 휴양, 쇼핑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 전환점이다. 앞으로 비슷한 내용의 호텔 10여개의 신축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마카오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남아 관광객의 눈길을 끌기 위한 이벤트도 곁들여졌다. 호텔 개장 행사에 특별히 초대된 한국 신혼부부가 전통 혼례식을 선보였다. 이어 태국, 인도네시아 신혼부부의 행렬이 뒤따랐다. 호텔을 소유한 라스베이거스 샌즈사의 셀린 애델슨 회장이 신혼부부에게 선물을 주는 장면은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졌다.

마카오의 화려한 변신이 이목을 끌고 있는 동안 아직 첫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한 서남해안 관광제 기업도 시조성사업(J프로젝트)이 대비했다. J프로젝트는 마카오와 버금가는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복합리조트를 꿈꾸지만 아직 간척지 양도·양수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현 주소는 너무 초라하다.

한국 기자들과 만난 애델슨 회장은 J프로젝트에 대해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2년 전 한 차례 J프로젝트 사업에 정부지인 해남·영암 일대 간척지를 둘러보았던 그는 투자의향을 물어 대뜸 '제도'와 '기반시설'을 들먹였다.

그는 "한국에 대한 투자의향은 있지만 (한국)정부가 내국인 입장 카지노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폐광지역발전특별법'에 의해 세워진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애델슨 회장은 태부족한 사회간접자본도 짚고 넘어갔다. 그는 "(J프로젝트 사업지역은)도로와 각종 편의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툳을 높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제도적인 뒷받침을 허용하고 지원해주는지가 투자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복합리조트를 갖춰 쟁쟁 달려가고 있는 마카오. 아직 걸음마 단계인 J프로젝트가 따라잡기에는 너무 거친 상대로 보였다.

/unipark@kwangju.co.kr